

# 칼로리를 잡아라...식품업계 간식 열량 낮추기

### 뷰티인사이드·라이트 엔젤·건면 새우탕... 살 안찌는 아이스크림·라면 등 출시 봇물

“먹고는 싶은데... 살찌면 어떡하죠?” “라면하고 아이스크림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지요.”

식품업계가 치열한 ‘열량 낮추기’ 경쟁에 나섰다. 높은 칼로리 탓에 선풍 먹기 망설여졌던 아이스크림이 살은 달걀보다 낮은 열량으로 변신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여기에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주적’으로 꼽히는 라면도, 면을 튀기지 않고 말려 칼로리를 낮춘 ‘건면’을 내세우며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노출의 계절’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돌입, 먹고 싶어도 참아야했던 식품들이 열량을 낮춰 등장하자 소비자들도 환호하는 분위기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최근 살은 달걀(80kcal)보다 열량을 낮춘 아이스크림 ‘뷰티인사이드’를 출시했다.

빙그레의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당을 50%, 지방을 80% 각각 줄였다. 용량은 110ml로 보통 아이스크림과 다를 게 없는 것에 비해, 열량은 70kcal에 불과하다. 설탕을 줄이는 대신 천연감미료로 단맛을 내 열량을 줄인 게 장점이다.

이에 맞서 롯데제과는 라이트 칼로리 아이스크림 ‘라이트 엔젤’을 출시하며 열량 낮추기 경쟁에 맞붙을 눈치다.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국화와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 배당체’를 사용한 라이트 엔젤은 일일 섭취 권장량(25g)의 50%에 해당하는 식이섬유 12.5g을 넣었다.

초코맛과 녹차맛, 바나나맛 총 3종으로 선택의 폭도 넓혔으며, 파인트와 컵 2가지 형태로 구성됐다. 파인트 열량은 일반 아

이스크림 대비 3분의 1수준밖에 안되는 280kcal로 낮췄다. 이는 공깃밥 1그릇(200g 기준 300kcal)을 밀도는 수치다. 컵 제품 열량은 59kcal다.

아식의 대명사인 라면도 저열량 제품이 나왔다.

농심은 최근 발효기술을 적용한 ‘건면 새우탕’을 내놓았다. 건면새우탕은 이름 그대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말려 건조한 ‘건면’을 사용, 새우탕 국물이 조화를 이룬 제품이다.

면 속에 국물이 스며들어서 더 맛있어서도 록 발효숙성면 제조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했다. 면발을 튀기지 않아 겉은 부드럽고 속은 탱탱한 식감을 자랑한 것에 비해 열량은 360kcal로 일반 라면(450~550kcal)보다 낮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설탕 없이도 믹스커피처럼 달콤한 맛을 구현해낸 커피도 출시됐다. ‘닥터키킨’이 출시한 ‘닥터키킨 다방커피’는 일반 믹스커피 대비 당류 함유량이 92% 낮은 0.4g

수준에 불과하다. 열량 역시 40% 수준으로 크게 줄였고, 탄수화물은 62%나 줄였다.

스테비아 등 고가의 천연 감미료를 첨가했다는 게 닥터키킨 측의 설명으로, 스테비아의 경우 설탕 대비 단맛은 300배가 높으나 열량은 10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식품업계가 일제히 열량 낮추기에 나선 이유는 최근 자신의 건강 등을 위해 친환경 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미코노미’(me economy·자신을 위해 소비하는)가 젊은층 사이에서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젊은층 사이에서 ‘미코노미’와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 등 소비형태가 떠오르고 있다”며 “가격을 떠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업계에서도 이를 대비한 마케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젤라또 아이스크림 ‘젤라푸또’ 입점

생과일·곡물 직접 갈아만들어 로 40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젤라푸또는 안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생과일과 곡물, 견과류 등을 갈아 넣은 뒤 현장에서 만들어 제공한다. 또 제철과일을 곧장 갈아 사용하고 기존 바닐라 향을 첨가하는 게 아니라 천연 바닐라빈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맛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시적 팝업스토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하고, 리조, 딸기, 초코, 녹차, 피스타치오 등 8가지 메뉴 중 두 가지 맛을 담은 컵과 콘으로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공기 맑게 하고 음악도 듣고...블루투스 스피커 갖춘 공기청정기 출시

### ‘디케이 미니에어’ 선보여

향토기업인 디케이(주)는 4일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동시에 담은 ‘디케이 미니에어’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디케이 미니에어’는 실내 공기청정기 기능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함께 갖춘 제품이다. 외형은 가로·세로·높이 모두 15cm 크기의 정육면체로, 자외선(UV) 살균방식의 공기청정 기능과 우퍼를 포함한 스피커가 탑재돼 있다.

제품색상은 화이트, 다크 그레이, 블랙 등 총 3종이며 가격은 14만9000원이다. 살균에 탁월 등 공기청정기 본연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음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중저음을 강화한 인클로저가 탑재된 블루투스 스피커로 깨끗한 음질을 재생시킨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또 두 대를 사용할 경우 스테레오 사운드로 작동돼 더 생생한 음질을 감상할 수 있다. 스피커의 경우 가전 대기업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그대로 사용할 만큼 음질에 신경 썼다는 게 ‘디케이’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제품을 10㎡(약 3평) 크기의 방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만들어 학생과 싱글족을 타겟으로 삼았다.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와 광고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에 나섰다.

디케이 관계자는 “지난 3월에 10일 동안 진행된 사전예약 판매에서 단 하루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릴 정도로 시장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저렴한 ‘가심비’를 갖춘데다, 침실과 공부방, 소형 사무실 등 ‘작은 공간에 어울리는 미니 공기청정기’라는 이미지로 최근 소비트렌드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케이 관계자는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발판 삼아 독자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대기업과 차별화된 스마트 에어 가전을 중점 출시하는 등 스마트 에어가전 전문기업으로 성장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케이의 전국의 32개 서비스센터와 서비스콜센터(1544-1154)를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롯데백화점 광주점, 中 개별관광객 ‘싼커’ 잡기 나섰다

### 무안공항 정기노선 확보 따라 화장품·핸드백 등 세일 혜택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이 확보됨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일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가장 많은 국제 정기노선을 확보함에 따라 중국인 개별관광객 ‘싼커’를 잡기 위한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했다.

무안공항의 정기선을 이용해 입국하는 개별관광객들은 서울이나 제주도 관광이 주목적인 단체관광객과 달리 광주·전남 지역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광주점은 중국 노동절(4월29일~5월1일)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 핸드백, 전기발삼 등 10여개의 인기브랜드를 선별, 10~40%의 할인 및 샘플 추가 증정 등의 혜택

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구매금액에 따라 5~10%의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비롯한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도 시행한다.

즉시환급 서비스는 백화점에서 구매한 영수증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과 동시에 5~8%의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결제, 출국장에서 택스 프리(tax-free) 과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리바바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서비스’도 완비한 상태로, 중국인 고객을 전담하는 직원이 통역·응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어로 제작한 매장안내도를 비치, 상품 및 브랜드 소개도 강화한 상태다.

최상급 광주점 영업지원팀은 “무안국제공항의 국제 정기노선이 많아지면서 기간 전세기 중심의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개별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면세점 구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기획과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삼성전자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 ‘파워전 2018년형’ 신제품 나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파워전 2018년형’ 신제품이 출시됐다. (사진)

150W(와트) 흡입력을 자랑하는 ‘파워전150’과 130W 흡입력의 ‘파워전 130’ 등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다.

2018년형 파워전 150은 용 소재를 적용한 ‘소프트 마루 브러시’와 ‘이중 터보 브러시’ 등 브러시 2종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소프트 마루 브러시는 정전기 발생을 줄이는 은사(銀紗)가 포함돼 바닥재를 보호하고 바닥에 달라붙은 미세한 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다.

파워전 130은 ‘터보 브러시’를 적용, 마루와 카펫 등 다양한 재질의 바닥을 브러시 하나로 청소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기존의 벽걸이형 충전 거치대 외에 못으로 벽에 박지 않고 세울 수 있는 스탠딩형 충전 거치대를 추가했다.

▲10년 무상 보증되는 디지털 인버터 모터 ▲미세먼지를 99.999% 차단하는 5중 정정 헤파 시스템 ▲최대 50도까지 구부러져 낮은 곳을 청소할 때도 손목이 편안한 플렉스 핸들 ▲배터리 2개 사용



시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분 동안 청소할 수 있는 32.4V 착탈식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등 주요 기능도 그대로 갖췄다.

파워전 150은 출고가 91만9000~119만9000원, 파워전 130은 핑크·블랙·레드 3종 색상으로 64만9000원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복포 (061)683-0485

여수 (061)726-0482

순천 (061)795-0485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